<Elderly-Computer Interaction: Begin with the solution>

간편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곳곳에서 사람의 영역이 적어지고 있다.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해 예전보다 빠르게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한다.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낯선 기계 앞에서 도리어 소외감을 느끼신다. 점점 더 생활 속 많은 것이 무인화가 될 시대에, 이런 ‘기술 소외’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터랙션을 제안하고자 한다. 수많은 선택지를 제공받은 상황에서는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보다,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A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때가 있다.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.